

# 민선 8기 보편적 복지 '통했다'

순창군, 지난해 이어 올해 4월 말 40명 인구 증가 지속

지난해 말 기준 9년 만에 인구 증가에 성공한 순창군이 보편적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올해 4월 말 현재 40명의 인구가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 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2만 6,764명으로 2022년 12월 2만 6,727명과 비교해 37명의 인구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표를 보였다.

특히, 순창군은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2만 6,804명의 인구를 기록, 지난해 2023년 12월 대비 40명이 또 증가하는 인구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연말 잠시 반짝 증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망자 수(163명)가 출생자 수(29명)보다 많아 자연감소 인구수만 134명이

나 있지만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수보다 171명이 많아 인구 증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한 사회적 문제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전입 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군은 순창만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도시 인구 유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추진한 정책이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농민기본소득확대, 청년 종자통장 지원 사업 등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농촌유학생 모집을 통해 서울 9명, 경기 9명, 광주 7, 기타 6명 등 31명과 올해 연장한 농촌유학

생 10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순창으로 농촌유학을 신청해 전북도내 1위를 기록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81명을 순창군에 전입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군은 최근에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2배를 지원해 2년 뒤 종자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49세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월 지원액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려 2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정주 인구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정책 외에도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등 주거 공간을 마련해 도시민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지난 4월부터 6일까지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39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4 임실N페스티벌에 5만여 명의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 '2024 임실N페스티벌' 성황

5만여명 찾아 역대 최대 인파... 다양한 이벤트 큰 호응

임실군이 지난 4월부터 6일까지 3일간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39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4 임실N페스티벌에 5만여 명의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비가 내린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생생 존중을 주제로 한 2024 임실N페스티벌에는 반려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5만여 명의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와 실체현 수의사, 이응중 연암대학교 교수, 나은식 고양이 수의사가 출연한 반려동물 토크쇼에서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고 3,000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전북경찰청 경찰특공대 폭발탐지견 '전독', '전복'이 담당 경찰관에게 의로운 반려동물 시상식을 진행했고, 3년 연속 반려동물 토크쇼를 위해 임실군을 방문한 강형욱 훈련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이어진 개막공연에서는 장민호, 양지원, 김의영 등의 신나는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임실N페스티벌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반려동물 패션쇼에서는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이 조화를 이뤄 특색 있는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그맨 이진규의 진행과 간미연, 황비올 부부가 섹션으로 출연하여 패션쇼를 빛냈다.

또한 둘째 날 개최한 제12회 최갑석 가요제에서는 예선전을 치른 12개 팀이 무대에 올라 탄탄한 실력을 선보였으며, 이찬원, 황윤성 등이 초대 가수로 출연하여 굿은 날씨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반려동물용품 만날 수 있는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각종 반려동물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온 관객들에게 풍성한 이벤트와 좋은 추억을 제공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 남원시, 전국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고향방문단 간담회

정례화 방안 논의

남원시는 최근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최순모)와 고향방문단 정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안순업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호남향우회에서는 최순모 회장과 박석 부회장, 그리고 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장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지난 4월 21일 성남시 호남향우회의 고향방문단 약 2,000명이 남원을 방문하도록 도와 주신 최순모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남원시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 민간교류 활성화 등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순모 회장은 "호남 거주인구



남원시는 최근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와 고향방문단 정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 500만 명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1,300만 명이 넘는 출향민들이 고향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고향방문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향우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출향민 홍보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생활인구와 연고지 중심으로 하는 관계인구를 포함한 지역 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 생활인구 증대 방안으로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편성이나 마을 호텔도 만드는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해당 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생활인구와 연고지 중심으로 하는 관계인구를 포함한 지역 정책을 구상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 생활인구 증대 방안으로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편성이나 마을 호텔도 만드는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관촌초,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관촌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김춘우) 주최·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4일 관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과 군의회 의원, 박정규 전북특별

자치도의회 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한 동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관촌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는 필봉농악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100주년 기념행사와 공로패·감사패 수여, 임실군 애향장학금 기탁, 관촌초 장학금(체험활동비 지원) 전달, 100주년 기념비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는 이정희 교장(2021년 교장)과 김영근 전 관촌면 지역발전협의회장에, 감사패는 김종욱 운영위원장과 김명진 관촌면장에게 수여됐다. 관촌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임실군에 애향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관촌초등학교에 장학금 500만원을 학생 자치활동지원 체험학습비로 김중환 교장에게 전달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 순창군수, 유기농복합센터 전시물 계약자 선정 과정 특별 감사 지시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계약자 선정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최 군수는 특별감사 실시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자 선정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 중인데, 계약자 선정 과정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관련 등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순창군 감사부서는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점 배점방식,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과정, 기타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전시물 제작 설치와 관련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계약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3월 18일 입찰공고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내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내부의 전시물 제작설치 등 2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계약 내용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려 새로운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수준의 대표적 서정 문화재 중 하나다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